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의 매개 과정 연구*

박진희
서울여자대학교

박지선†
부산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고등학생 자녀의 부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부갈등이 형제자매관계를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고교생 355명(남학생 158명, 여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척도, 형제자매관계척도, 청소년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고등학생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부부갈등은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의 질을 매개로 내재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낮아졌고,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낮을수록 자녀의 내재화문제는 높아졌다. 또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의 갈등도 높아졌는데,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내재화문제도 높아졌다. 셋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을 매개로 외현화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졌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외현화문제도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은 고등학생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자매관계의 질 역시 자녀 개인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점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가 다시 청소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부갈등, 형제자매관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청소년의 문제행동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교신저자 : 박지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부산특별시 금정구 오류대로 57

E-mail: lala@cup.ac.kr

청소년기는 인지적, 사회적, 생리학적 측면의 급격한 발달과 변화로 인하여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Conger & Ge, 1999; 하문선, 2016에서 재인용)로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부적응은 주로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다. 내재화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수줍어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거나 우울, 불안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현화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Achenbach & Edelbrock, 1978; Eric & Russell, 1996; 하문선,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인의 정서적·발달적 문제는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 가족, 원가족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정문자, 2008).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 환경과 가족기능에 주목하였다(Ackerman, 1966; Buehler & Gerard, 2002; Felner & Felner, 1989). 가족 변인 중에서도 부부갈등은 아동·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부부간의 갈등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가족 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의 능력을 배우는 아동은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권영옥, 이순형, 1999에서 재인용).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게 되는 부정적인 언어, 비언어적 언쟁, 신체적 싸움 등을 말한다(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송은주, 이지연, 2010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경우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관련 문제행동 점수가 높아졌다(소영화, 조한익, 2015). 또한 부부갈등이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부부갈등이 낮은 양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는 높은 반면, 정서조절, 삶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소희, 2011). 갈등이 심했던 부부의 이혼이나 별거 후 청소년 자녀의 심리 정서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매우 위협적인 스트레스 요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Amato, 2000; Jekielek, 1998).

청소년에게 형제자매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생의 혈연 관계이다.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관계는 사회성 발달의 실험실이며, 또래관계의 수평적 특성과 부모-자녀 관계의 수직적 특성이 복합된 관계이다(Cicirellis, 1978; Dunn & Munn, 1985; 김선미, 1995에서 재인용). 우정과 달리 형제자매관계는 자의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관계로 무엇보다 같은 부모와 가족, 공통의 생활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외적환경의 영향을 공유하는 역사를 지니고 이에 더해 부모의 갈등이라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함께 겪는 동지가 된다.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는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친구나 학교생활 등 보다 넓은 관계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고난을 함께 한 형제자매관계는 어느 관계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형제자매관계의

질은 온정과 애정, 친밀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갈등과 경쟁,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양가적인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Buist, Dekovic, & Prinzie, 2013).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양가적인 정서는 '온정'과 '갈등'의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두 개념은 서로 양가적이어서 온정적일수록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Stocker & McHale, 1992; 장휘숙, 2009) 온정이 높다고 갈등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Brody et al., 1994; Buist, & Vermande, 2014; Gamble, & Yu, 2014; McGuire et al., 1996). 즉, 두 변인이 다른 차원이므로 동시에 고려해 관계의 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되고 있다.

한편 형제자매관계의 질이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의 결혼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낮은 경우 형제자매관계에서도 갈등이 낮았고 이러한 효과는 1년 후에도 지속되었다(Brody, Stoneman, & McCoy, 1992). 또한 부부간의 낮은 갈등은 어린 형제자매관계의 친사회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었고(Brody, Stoneman, & Burke, 1987), 부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형제자매관계의 갈등과 경쟁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Stocker & Youngblade, 1999). 그러나 형제자매관계와 부모의 부부응집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간의 온정은 부와 모의 부부응집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고 형제자매간의 갈등만이 상관이 있었다(박진희, 박지선, 2015). 이렇듯 부부관계와 형제자매관계는 관계의 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의 부적응 역시 형제자매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청소년 개인의 공격성을 줄이고, 내재화 문제도 줄인다(Buist & Vermande, 2014). 평균 10.7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4개의 형제자매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형제자매간의 온정은 낮은 외현화문제 및 내재화문제와,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더 많은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와 관련이 있었다(Buist, Dekovic, & Prinzie, 2013).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형제자매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간 관계에서 형제자매관계가 매개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Bank, Burraston & Snyder, 2004; Buist & Vermande, 2014; Gass, Jenkins, & Dunn, 2007; Jenkins & Smith, 1991; Waite et al., 2011).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부모의 부부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개인의 공격성을 줄이고, 내재화문제를 줄여주었고(Buist & Vermande, 2014),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Bank, Burraston, & Snyder, 2004).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긍정적인 형제자매관계가 문제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역할을 하였다(Jenkins & Smith, 1991).

그러나 형제자매관계의 질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의 유형을 세분화했을 경우 연구의 결과는 다양해 관계의 영향력이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Gass와 Jenkins, Dunn(2007)은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년간 종단연구를 하였고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자료분

석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는 조절효과를 지니지만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Waite 등(2011)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자녀 개인의 스트레스, 형제자매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모두 보호효과를 발휘하는 지를 검증한 결과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온정적이고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따라, 또 청소년 자녀가 겪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부부갈등의 영향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족의 체계적 구조 안에서 부모체계의 갈등이 청소년 자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유사한 연구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체계의 또 다른 하위 체계인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로 청소년 자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본 연구는 충분치 않고, 더욱이 국내에서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의 체계 안에서 또 다른 하위체계인 형제자매관계를 포함시켜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의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의 영향력이 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줄어드는 발달단계의 특성뿐 아니라 입시문화라는 고유한 한국사회의 교육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부부갈등→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는

직접 효과의 경로와 부부갈등→형제자매관계→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안에서 부부갈등이 고등학생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형제자매관계의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설정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해보려고 한다.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연구대상의 출생순위, 관계의 구성(성별, 연령, 연령차) 및 발달수준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다양하며(Buhrmester, 1992; Sherman, Lansford, & Volling, 2006; 이재연, 이완정, 2004; 장휘숙, 2009), 형제자매의 발달단계에 따라 관계의 궤적 역시 달라졌다(Kim et al., 2006). 따라서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선정과 연구설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에 따른 특징이 아니라 형제자매관계의 질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은 하지 않았다.

종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고등학생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등을 매개로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등을 매개로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3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나 이상치 등 정규성에서 벗어나는 자료를 제거한 후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총 355명이었다. 1학년이 217명(61.1%), 2학년이 138명(38.9%)이었으며, 남학생은 158명(44.5%) 여학생은 197명(55.5%)이었다. 형제의 수는 2명인 학생이 275명(77.5%)였고, 3명과 4명이 각각 75명(21.1%)과 4명(1.1%)였고, 형제가 5인 경우가 1명(0.3%)이었다.

측정도구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자녀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et al.(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해 타당화한 4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형식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진아와 신희천(2006)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갈등성질 요인을 나타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의 3개 요인,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부갈등의 빈도 문항은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등의 총 5문항으로 Cronbach's α 가 .72였다. 부부갈등의 강도는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는 큰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등의 내용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α 값 .72였다. 부부갈등해결은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진다(역채점)' 등의 내용으로 총 5문항 .81이었다. 부부갈등해결은 역채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결의 의지가 낮은 것을 뜻한다. 전체 15문항의 신뢰도는 .89였다.

형제자매관계

형제-자매관계 척도는 Furman과 Buhrmester (1985)가 제작하여 박영애(199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 5점으로 측정되는 자기보고식의 척도로 형제자매관계를 '온정',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편애지각)'의 네 가지 영역에서 채점한다.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온정'과 '갈등'이 주로 연구된 바(Brody et al., 1994; Buist, & Vermande, 2014; Gamble, & Yu, 2014)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온정(8문항: '나와 형제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나?', '나와 형제는 서로 얼마나 돕고 의지하나?' 등)과 '갈등(5문항: '나와 형제는 서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나와 형제는 서로 괜히 트집을 잡고 잔소리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등) 번안만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Cronbach's α 값은 .95와 .90이었다.

한편 '온정'과 '갈등'이 단일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두 개의 꾸러미에 할당해 '온정1'과 '온정2', '갈등1'과 '갈등2'로 나누어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8개와 5개의 문항을 요인 1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부하량에 따라 문항을 줄 세운 후 잠재변인에 대한 각 꾸러미의 평

균 요인부하량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높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낮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지어 꾸러미로 할당하였다. 각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온정1'이 4개 문항 .92, '온정2'가 4개 문항 .88이었고 '갈등1'이 3 문항으로 .82, '갈등2'가 2개 문항으로 .84였다.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91)이 개발하고 오경자의(2001)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K-YSR: Korean Youth Self Report) 척도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내재화문제는 우울불안,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외현화문제는 공격성, 비행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3점 Likert 척도이다. 본 자료의 신뢰도는 내재화문제(28문항)의 경우 3개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우울불안이 13개 문항 .83, 사회적 위축이 7개 문항 .74, 신체증상이 9개 문항 .77이었고 총 내재화문제는 총 28개 문항 .894였다. 외현화문제(32문항)는 전체가 .85로, 비행이 12문항 .68, 공격성이 총 20문항으로 .81이었다.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3.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측정변인들의 분포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 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을 위해서는 카이제곱 검증,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카이제곱은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단점과 함께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해 적합도를 판단하기를 권한다. 보통 TLI, CF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는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보다 작으면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한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각 측정변인 간 상관과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왜도가 3 이하, 첨도가 10 이하로 분포의 정규성이 확인되어 측정변인으로서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Klein, 2015).

전체적으로 부부갈등은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은 형제자매의 온정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형제자매의 갈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3개 차원 중 갈등의 강도는 형제자매의 온정이나 갈등과

표 1. 형제자매관계,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N=355)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부갈등												
1. 갈등빈도												
2. 갈등강도	.66**											
3. 갈등해결	.67**	.63**										
형제자매의 온정												
4. 온정1	-.10*	-.04	-.15**									
5. 온정2	-.04	-.01	-.15**	.89**								
형제자매의 갈등												
6. 갈등1	.12*	.07	.13**	-.02	-.03							
7. 갈등2	.07	.03	.10*	-.01	-.02	.81**						
내재화문제												
8. 우울불안	.31**	.17**	.17**	-.13*	-.09	.19**	.15**					
9. 위축	.25**	.15**	.18**	-.19**	-.15**	.10*	.04	.72**				
10. 신체증상	.22**	.19**	.23**	-.01	-.01	.12*	.10*	.51**	.46**			
외현화문제												
11. 비행	.18**	.21**	.14**	-.03	-.07	.09	.09	.36**	.31**	.26**		
12. 공격성	.20**	.20**	.11*	-.02	-.02	.18**	.15**	.57**	.40**	.33**	.60**	
M	8.18	7.92	7.67	13.54	13.22	8.26	5.47	20.44	10.27	11.05	14.06	27.42
SD	2.20	2.28	2.40	3.82	3.85	3.68	2.03	4.73	2.58	2.48	2.16	4.72
Skewness	.82	1.07	.83	-.55	-.53	-.02	-.01	.95	.84	1.69	1.65	.74
Kurtosis	.19	.79	.20	-.02	-.03	-.57	-.54	.58	.21	2.72	3.05	.47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부갈등의 해결은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형제자매간의 갈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 이후 부모의 갈등 해결 노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형제자매간의 온정은 낮아지고, 갈등은 높아졌다.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chi^2 = 89.87$ ($df = 46$, $p < .001$), TLI = .971, CFI = .98, RMSEA = .052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2에 따르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관찰변인과 잠재변인간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으로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더불어 잠재변인들(내재화문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t
부부갈등	갈등빈도	1	0.849		
	갈등강도	0.954	0.782	0.063	15.103***
	갈등해결	1.03	0.802	0.067	15.379***
형제온정	형제온정1	1	0.965		
	형제온정2	0.964	0.924	0.027	36.376***
형제갈등	형제갈등1	1	0.878		
	형제갈등2	1.396	0.928	0.055	25.179***
내재화문제	우울불안	1	0.943		
	위축	0.443	0.766	0.029	15.382***
	신체증상	0.311	0.559	0.029	10.799***
외현화문제	비행	1	0.629		
	공격성	3.312	0.955	0.369	8.975***

* $p < .05$ ** $p < .01$ *** $p < .001$

제, 외현화문제, 형제갈등, 형제온정, 부부갈등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63 이하로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충족시켰다.

내재화문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 개인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등을 거쳐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이다. 반면 경쟁모형으로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표 3), 연

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보다 적합도 수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84, TLI=.977, RMSEA=.052). 두 모형의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Bentler와 Bonett (1980)가 권장하는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간 차이는 $\chi^2_{difference} = 85.739 - 62.454 = 23.285$ 로 자유도 1의 상실로 인한 차이검증결과가 임계값인 6.63보다 커 유의도 수준 $\alpha = .01$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홍세희, 2001).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즉,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 개인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의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 내재화문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χ^2	df	CFI	TLI	RMSEA (90%CI)
연구모형	62.454	32	.984	.977	.052 (.032-.071)
경쟁모형	85.739	33	.972	.961	.067 (.050-.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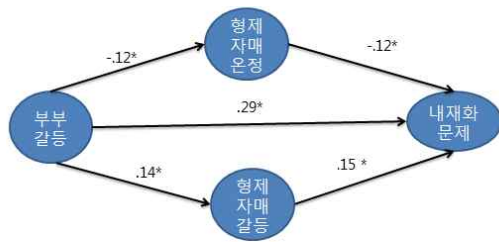


그림 1. 내재화문제에 대한 최종 모형

최종 선택된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4), 모든 효과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효과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beta=.294, p<.05$), 부부갈등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beta=-.120, p<.05$)에 미치는 영향력과 형제갈등에 미치는 영향력(β

$=.136, p<.05$)은 형제갈등이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높았고, 형제온정($\beta=-.119, p<.05$)과 갈등($\beta=.149, p<.05$)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형제갈등이 좀 더 높았다. 부부갈등이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질을 통해 청소년 자녀 개인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beta=.035, p<.01$). 간접효과와 크기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온정을 통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4(-.12 \times -.12)$, 갈등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021(.14 \times .15)$ 로 형제자매갈등의 매개효과가 조금 더 컸다.

외현화문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내재화문

표 4. 내재화문제 관련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갈등→형제온정	-.120*		-.120*
부부갈등→형제갈등	.136*		.136*
형제온정→내재화문제		-.119*	-.119*
형제갈등→내재화문제		.149*	.149*
부부갈등→내재화문제	.294*	.035**	.329*

* $p<.05$ ** $p<.01$

제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경로와 형제자매관계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상정한 부분매개모형이다. 이에 대항하는 경쟁모형으로는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 비교는 표 5와 같다.

연구모형으로 설정된 부분매개모형이 경쟁모형으로 설정된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전반적인 적합도가 우수한 편이었다(CFI=.981, TLI=.986, RMSEA=.042). 또한 두 모델간의 적합도 비교를 위한 χ^2 차이비교에서도 $\chi^2_{difference} = 48.907 - 39.064 = 9.843$ 으로 이 역시 유의도 수준 $\alpha=.01$ 수준에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좋은 모델로 판명되었다.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부부

갈등이 형제자매갈등을 거쳐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에 반해 부부갈등이 형제자매온정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이를 거쳐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 선택된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6), 부부갈등이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beta=.248$, $p<.05$), 부부갈등이 형제자매의 갈등($\beta=.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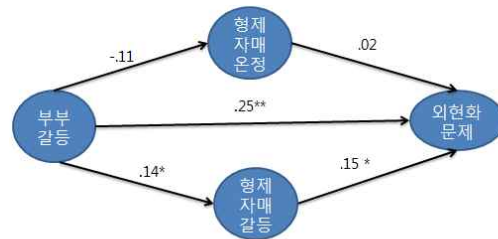


그림 2. 외현화문제에 대한 최종 모형

표 5. 외현화문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χ^2	df	CFI	TLI	RMSEA (90%CI)
연구모형	39.064	24	.991	.986	.042 (.012-.066)
경쟁모형	48.907	23	.984	.975	.056 (.034-.078)

표 6. 외현화문제 관련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 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갈등→형제온정	-.105		-.105
부부갈등→형제갈등	.141*		.141*
형제온정→외현화문제	.015		.015
형제갈등→외현화문제	.153*		.153*
부부갈등→외현화문제	.248**	.02	.268**

* $p<.05$ ** $p<.01$

$p < .05$)에 미치는 영향력과 형제갈등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53, p < .05$)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형제자매관계의 관계의 질을 거쳐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형제자매관계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고교생 355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부부갈등척도, 형제자매관계척도, 청소년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형제자매관계는 긍정적인 관계와 갈등적인 관계의 두 차원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18.0을 이용해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먼저 부부갈등과 형제자매관계의 관계의 질 및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의 측면에서 갈등의 빈도와 갈등의 강도는 형제자매관계의 질과 일관적이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부부갈등의 하위 척도 중 갈등해결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의 발생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지각하는 것이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일수록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높아지고, 갈등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는 부부갈등 그 자체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갈등적인 부부관계가 부모

의 양육행동(정소희, 2007)이나 부모자녀 의사소통(노윤옥, 전미경, 2006;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등을 저해하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상호 양방향적인 영향을 주고받음(Yu & Gamble, 2008)으로서 문제를 유발한다는 여러 매개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등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온정과 갈등의 두 개 차원은 양가 개념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개념이므로 형제자매관계의 역동성을 반영하려면 그 두 관계의 질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Brody et al., 1994; Buist, & Vermande, 2014; Gamble, & Yu, 2014).

셋째, 부부갈등은 청소년자녀 개인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자녀는 개인적으로도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가 높았다. 이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문제행동, 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Cummings, et al., 1991; 권영옥, 이순형, 1999; 소영화, 조한익, 2015; 정소희, 2007).

넷째, 청소년의 내재화문제는 외현화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내재화문제를 겪는 청소년은 외현화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질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인 효과의 설명력이 가장 컸다. 즉, 청소년자녀가 가정에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자녀 개인

의 문제행동이 커짐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소영화, 조한익, 2015; 정소희, 2011; Amato, 2000; Jekielek, 1998; Jenkins & Smith, 1990). 더불어 한국의 입시문화로 인해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들고 발달단계상 부모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후기 청소년기까지 그 직접적인 영향력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고교생의 경우라도 부모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폭넓은 사회생활과 학업 등으로 부모와의 접촉시간이 짧아지고 부모 외 다른 관계망의 형성이 넓어지는 청소년 시기의 자녀도 여전히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를 완충해줄 수 있는 조절변인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높은 부부갈등을 지각할수록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감소하고,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감소할수록 청소년 개인의 내재화문제는 높아졌다. 동시에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의 갈등도 높아지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문제도 높아졌다.

셋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형제자매관계의 갈등만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증가될수록 청소년 개인의 외현화문제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형제자매관계가 매개한다는 Bank, Burraston과 Snyder(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더욱이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은 34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한 연구(Buist, Dekovic, & Prinzie, 2013)와 동일하다. 또한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가 부부갈등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조절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Gass et al, 2007; Jenkins & Smith, 1991; Waite et. al., 2011). 그러나 온정적인 관계가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온정적인 관계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를 매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들(Scholte et al., 2007)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물론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도 있다. Gass 등(2007)은 2년간의 종단연구에서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을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조절하였으나, 외현화문제에서는 조절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Waite와 그의 동료들(2011)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 중 우울에 대해서만 조절함을 발견했다. 김민정과 도현심(2001)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형제자매관계 중 부정적인 관계는 외현화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관계는 외현화문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현화문제가 아닌 내재화문제만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문제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관한 매개효과연구와 조절효과연구의 결과는 비일관적이며, 그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가족의 체계 안에서 형제자매관계를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은 입시에 바쁜 고교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부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내재화문제는 더욱 나빠지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감소하는데, 이렇게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감소되면 자녀가 경험하는 내재화문제 역시 높아지는 경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외현화문제의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외현화문제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는 경로에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 결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자녀뿐 아니라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 관계의 질이 청소년 자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녀가 경험하는 다른 가족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상담 현장이나 교육장면에서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고 온정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이 높은 가정이 아닌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형제자매관계가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문제의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한 바 형제자매관계가 보호요인이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발에 있어 위협요인보다 보호요인의 부재가 더 강력한 예측인자가 된다는 연구결과(한상철, 2008)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관계의 질이 보호요인이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횡단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해 자녀의 문제행동이 유발된 것인지,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관계의 갈등이 유발된 것인지와 같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이 수도권 거주 고교생에 한정된바 모든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더불어 본 연구대상자들의 발달특성상 형제자

매관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적은 시기임을 고려해볼 때 연령대가 다른 형제자매관계(유아 및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기)를 연구한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형제자매구성 및 성별에 따른 다각적인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관계 중에서도 첫째보다 작은 아이가 부부갈등과 연관되어 더 적은 문제를 경험한다(Sandler, 1980)는 연구들과 같이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에 관한 보다 면밀한 연구설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부분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매개변인의 보호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녔으며, 직접적인 경감효과인지, 상호작용을 통한 완충효과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후에는 조절효과를 연구해 형제자매관계가 어떻게 보호요인으로서 작용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옥, 이순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0(4), 61-74.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노윤옥, 전미경 (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18(1), 1-16.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진희, 박지선 (2015). 부부응집력이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8), 453-478.
- 소영화, 조한익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동교육*, 24(2), 229-248.
- 송은주, 이지연 (2010).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화 경험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1(1), 335-354.
- 오경자, 이해린, 홍강의, 하은혜 (2001).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3(2), 185-201.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63-72.
- 이재연, 이완정 (2006).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 구성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질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 129-146.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장휘숙 (2009)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 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33-48.
- 정문자 (2008). 한국 가족의 문제와 관련된 변인의 발달단계별 탐색 - 1982년~2007년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41.
- 정봉희, 김혜경, 이영순 (2009). 인문계 고등학교 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8(1), 291-312.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소희 (2011). 갈등적인 부부관계와 한부모가족, 어느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가? *사회복지연구*, 42(4), 165-186.
- 하문선 (2016). 청소년의 부적응과 가족갈등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0), 287-316.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73-29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6), 1275-1301.
- Achenbach, T., & Edelbrock, C. (1991). *Manual for the CBCL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kerman, N. W. (1966). *Treating the Troubled Family*. Basic Books: New York.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1269-1287.
- Bank, L., Burraston, B., & Snyder, J. (2004). Sibling conflict and ineffec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adolescent boys' antisocial behavior and peer difficulties: Additive and interactional effe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1), 99-125.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
- Brody, G. H., Stoneman, Z., & Burke, M. (1987). Child temperaments, maternal differential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354.
- Brody, G. H., Stoneman, Z., & McCoy, J. K. (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 temperaments to longitudinal variations in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and sibling relationship sty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274-286.
-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78-92.
- Buist, K. L., Dekovic, M., & Prinzie, P. (2013).

-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and psychopatholog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 97-106.
- Buist, K. L., & Vermande, M. (2014). Sibling relationship patter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child competence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Review*, 28, 529-537.
- Buhrmester, D. (1992). The developmental courses of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F. Boer, & J. Dunn(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In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pp 19-40).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icirelli, V. G. (1978). Effect of sibling presence on mother-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15-316.
- Conger, R. D., & Ge, X. (1999). Conflict and cohesion in parent adolescent relations: changes in emotional expression from early to mid-adolescence. In M. J. Cox, & J. Brooks-Gunn (Ed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pp. 185-206). Mahwah, NJ: Erlbaum.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Dunn, J., & Munn, P. (1985). Becoming a family member: Family conflict and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6, 480-492.
- Dunn, J., Slomkowski, C., & Beardsall, L. (1994). Sibling relationships from the preschool period through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15.
- Eric, J. M., Russell, A. B. (1996). *Child psychopathology*. NY: Guilford Press.
- Felner, R. D., & Felner, T. Y. (1989). Primary prevention programs in the educational context: A transactional ecological framework and analysis. In L. A. Bond & B. E. Compas. *Primary Prevention Promotion in the Schools*. Newbury Park, CA: Sage.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Gamble, W. C., & Yu, J. J. (2014). Young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 interactional types: Associations with family characteristics, parenting, and child characteristic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2), 223-239.
- Gass, K., Jenkins, J., & Dunn, J. (2007). Are sibling relationships protectiv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2), 167-175.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 Jenkins, J. M., & Smith, M. 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ur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5), 793-810.
- Kim, J. Y., McHale, S. M., Wayne Osgood, D., & Crouter, A. C. (2006). Longitudinal course and family correlates of sibling relationships

-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7(6), 1746-1761.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McGuire, S., McHale, S. M., & Updegraff, K. (1996).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sibling relationship in middle childhood: Connections within and between family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3, 229-239.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41-52.
- Scholte, R. H., Engels, R. C., de Kemp, R. A., Harakeh, Z., & Overbeek, G. (2007).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sibling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661-671.
- Sherman, A. M., Lansford, J. E., & Volling, B. L. (2006). Sibling relationships and best friendships in young adulthood: Warmth, conflict, and well being. *Personal Relationships*, 13(2), 151-165.
- Stocker, C. M., Burwell, R. A., & Briggs, M. L. (2002). Sibling conflict in middle childhood predicts children's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1), 50.
- Stocker, C. M., & Youngblade, L. (1999).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hostility: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4), 598.
- Waite, E. B., Shanahan, L., Calkins, S. D., Keane, S. P., & O'Brien, M. (2011). Life events, sibling warmth, and youths'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5), 902-912.
- Yu, J. J., & Gamble, W. C. (2008). Pathways of influence: Marital relationships and their association with parenting styles and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6), 757-778.

1차원고접수 : 2017. 03. 30.

수정원고접수 : 2017. 05. 29.

최종게재결정 : 2017. 06. 07.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Testing the Mediating Process of Sibling Relationship

Jinhee Park

Seoul Women's University

Jisun Park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ibling relationships mediate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s on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The sample comprised 355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metropolitan area. The measurement tools used were the marital conflict scale, the sibling relationship scale, and the adolescent maladjustment behavior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18.0. Findings revealed that marital conflicts negatively affected both extern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in adolescents. Specifically, marital conflict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negative effects on the internalization problems of adolescents. Second, the quality of the sibling relationship mediated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s' adjustment problems. In other words, marital conflict led to lower warmth and greater conflict among siblings, which in turn led to greater internalization problems. Third, marital conflict has a direct and indirect negative effect on externalization problems and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conflict among siblings, but not by the warmth among them.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marital conflict has a strong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and sibling relationship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considered the effects of the marital conflict on not only the quality of sibling relationships but also on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e mediating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s in the negative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Key words : Marital Conflicts, Sibling Relationship, Externalization problem, Internalization problem